

‘죽음’이라고 하는 불치병을 고치는 최고 의사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연초에 세웠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점검해 보는 달이다. 목표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대의 목표는 무엇이며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만일 그대가 질병치료를 그 목표로 했다면 어느 정도 목표가 이루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완치되었는가? 아니면 아직 진행중인가? 만일 아직 완치가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의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의사를 바꾸어 보기 바란다.

최고의 의사: 구세주·생미륵불

신앙인들조차 자신의 진실한 최고의 의사가 누구지 모른다. 성경은 하나님을 질병을 치료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말라기 4:2)”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다는 것이다. 흔히 원격 외전 치료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것이다.

또한 불경에서도 부처님을 대의왕(大

醫王)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의사 중의 의사라는 것이다. 약사여래불 또한 약으로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는 부처의 이름이다. 열반경은 특히 미륵불은 감로수로써 중생들의 병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감로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진짜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조희성 미륵불이 출현하여 감로의 실체를 밝히니 유불선 모든 경전에 감로가 설해져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감로로 불치병을 치료한다

불경 열반경 8권에 “或有服甘露(혹유복감로) 傷命而早夭(상명이조요) 或復服甘露(혹부복감로) 壽命得長存(수명득장존) - 종략 - 得至於涅槃(득지어열반) 無上甘露味(무상감로미) 不生亦不死(불생역불사) - 혹 감로를 먹으면 상한 목숨이 빨리 생명력을 얻어 왕성하게 되고, 혹 다시 감로를 먹으면 수명이 오래도록 살 수 있다. - 종략 - 열반에 이틀지니 위없는 감로의 맛은 나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게 한다.”라고 감로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으며, 감로는 불사약(不死藥)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는 호세아 14장 5절에 하나님께

서 이긴자(구세주)에게 이슬(감로)로 함께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감로가 바로 의로운 해가 발하는 치료하는 광선이다.

격암유록에도 감로가 불로초이며 불사약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격암유록 말문론에는 감로를 일컬어 “不老不死 長仙之藥(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오래도록 사는 신선들이 먹는 약)”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또한 해인가(海印)에는 “진시황과 한(漢)무제가 구하던 불로초 불사약이 어디 있소. 구름과 안개 가운데 7색 무지개가 있으며, 비와 같은 감로가 바로 해인(海印)인데 불과 비와 이슬, 이 세 가지가 풍성한 해인(海印)이니 극락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다. 변화무쌍한 도장인(印)자는 무소불능한 바다의 해인(海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모든 예언들은 감로가 ‘죽음’이라는 최고의 불치병을 치료하는 물질이라는 것이다.

승리제단: 불사영생 실천 장소

승리제단에는 구세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항상 감로가 내린다. 다른 곳에는 감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로가 무엇인지 그 실체조차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호세아 4:6)”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로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이 세상에는 학문이 없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인 하나님의 영을 마귀가 죽이는 겁니다. 사람의 영이 죽는 순간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 세상 과학자들과 의학박사가 이런 걸 알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학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죽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체계를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알고 믿어야지, 바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길을 잘못 가는 거죠?

구세주 말씀 중에서

근육은 3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근육이 활동할 자리에 지방이 늘어나고 생활 습관병, 대사 증후군 위험(혈압, 당뇨, 고지혈)에 쉽게 노출된다. 그러므로 칼로리를 소모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요가 자세로서 복근과 척추 강화에 좋은 고양이 자세를 우리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고양이 자세~

준비운동: 금강좌로 앉아서 어깨와 손목을 부드럽게 풀어 준다.

주의: 엉덩이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한다. 무릎이 직각이 되도록 한다.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한다.

동작①: 테이블 자세로 손은 어깨너비, 무릎은 골반 너비로 한다. 날숨, 들숨 반복 10회.

동작②: 숨을 내쉬며 복부를 등 뒤로 붙이고 고시선은 배꼽을 바라본다. 최대한 등을 둥글게 말아 척추 마디마디를 열어 준다.

동작③: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는 등 뒤에 붙이고 엉덩이와 가슴을 위로 끌어 올린다. 고개를 들어 준다. 10초 유지.(2-3번 이어서) 5회.

동작④: 테이블 자세에서 상체를 한쪽 방향으로 틀어 발끝을 바라본다. 반대쪽 옆 구리를 길게 늘려준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우명성(牛鳴聲)에 마귀 잡초 김을 매고 감로해인 호흡하여 천년만년 살리라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63회

七斗歌(칠두가)

天牛耕田(천우경전밭을갈아) 永生之數(영생지수)심어논코
牛鳴聲中除穢(우명성중제누하야) 甘露如雨呼吸時(감로여우호흡시)에
日就月長自長下(일취월장자장하) 寺畚七斗此農事(사빈칠두차농사)는
無田庄(무전장이) 獲得(획득)이요
不久世月十年之農(불구세월십년농) 萬年食之又千萬年(만년식지우천만년)

하늘소가 전리의 밭을 갈아 영생의 곡식을 심어놓고 소 울음소리로 김을 매고 (정도령이 영생의 전리를 가르치는 가운데 마귀를 뿌리째 뽑아 박멸소탕하고) 비같이 내리는 감로해인을 호흡할 때 심령이 일취월장 스스로 자라나니 ‘사담칠두(寺畚七斗) 이 농사는’ 즉 복두칠성(정도령)이 짓는 하늘 농사는 논밭이 없어도 곡식을 무한정 거두어 얻을 수 있으니 머지않은 세월에 심년농사(심승의 정도령이 감로해인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농사)로 감로해인을 만년을 먹고 또 천만년을 먹고 살게 되리라.

石井歌(석정가)

生命水(생명수)샘물이
出瀧出瀧(출롱출롱)은
天下萬國(천하만국)에
다通下(통하)
毒惡砂氣運吸收受下者(독악사기운 흡수하자)라도
此(차)샘에오면 不喪(불상)이요
利在石井天井水(이재석정천정수)는
一次飲之延壽(일차음지연수)이요
飲之又飲連飲者(음지우음연음자)는
不死永生此泉(불사영생차천일세)

생명수 샘물이 출렁출렁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니 악독한 기운과 사된 기운을 마신 자라도 이 샘에 오면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요. 이로움이 석정에 있다고 하는데 석정은 하늘의 샘물이라 한 번 마시면 수명이 연장되고 마시고 또 마시고 연달아 마시는 자는 불사영생하는 샘물일세.

十姓歌(십성가)

十姓之理如何意(십성지리어하의야오) 十處十勝姓也(십처십승성야)니
四方中央乙字(사방중앙을자)이요 右乙之間十字(우을지간십자)이요
左乙中央十勝(좌을중앙십승)이아 四角虛虧十字理(사각허휴십자리)에
滿七加三十姓(만칠가삼십성)이요 地理十處十姓(지리십처십성)이요
天理弓十勝(천리궁십승)이니 訪道君子慎之下(방도군자신지하)
誤入十勝(오입십승)부대마소 後悔莫及痛嘆下(후회막급통탄하)

십성의 이치는 무슨 뜻인가? 십처 십승이 십성이니 사람의 중앙에 을(乙)자가 십성이요 오른쪽으로 을이 들어가며 연결된 사이의 십자가 십성이요 왼쪽으로 을이 들어가는 중앙에 있는 십자가 십성이니라. 네 모서리가 비고 이저리진 모양에서 십자가 나오는 이치요. 칠(七)에다 삼(三)

을 더하여 채운 것이 십성이요. 지리상의 십처도 십성이지만 진짜 십승은 아니니라. 하늘의 이치를 나타내는 궁궁(弓弓)이 참된 십성이니 도를 찾는 군자들이여, 부디 몸가짐과 언행을 삼가고 삼가서 잘못된 십승에는 들어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막급 통탄하리라.

三八歌(삼팔가)

十線反八三八(십선반팔삼팔)이요 兩戶亦是三八(양호역삼삼팔)이며
無酒酒店三八(무주주점삼팔)이니 三字各八三八(삼자각팔삼팔)이아
一鮮成胎三八(일선성태삼팔격)에 左右相望寒心事(좌우상망한심사)요
兩虎牛人奮發下(양호우인분발하) 破碎三八役事時(파쇄삼팔역사시)에
龍蛇相纏龍下(용사상투패용하) 吟龍一起無三八(음룡일기무삼팔)에
玉燈秋夜三八日(옥등추야삼팔)일을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십(十)자에 반(反)자와 팔(八)을 합하면 판(板)자가 되고 호(戶)자가 좌우로 돌이면 문(門)자요, 주점(酒店)에서 주(酒)자 없으면 점(店)자가 되어 판문점(板門店)이 되니라. 세 글자의 획수가 각각 팔(八)이 되니 삼팔이 되고 선(線)을 더하면 삼팔선(三八線)이 되니라.

하나의 조선이 잉태(孕胎)하여 삼팔선에 막혀 좌익, 우익으로 나뉘어 서로를 원망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경인년에 남과 북의 빨갱이(牛人=朱 붉은 주)가 떨쳐 일어나 삼팔선을 깨뜨려 부수는 역사(役事)를 할 때 용(龍=남한)과 뱀(蛇=북한)이 서로 싸우지만 용(龍=남한)이 패하리라. 패배하여 신음하던 용(龍)이 한 번 일어나면 삼팔선이 사라지고 정도령의 천지공사로 남북통일이 되리라. 이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리라.

옥등추야(玉燈秋夜)는 가을 밤 하늘의 보름달로 어둠을 밝히는(마귀를 없애고 밝은 세상을 여는) 십오진주(十五眞主=구세주)를 뜻하고 삼팔일은 갑을(三=甲, 八=乙)의 해(日=해)를 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는 날(봄봄)을 의미한다.*

백영희 / 고서연구가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참진리 | 죄 담당 전도 문답 [36]

질문: 구세주라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를 담당하는 존재인데, 어떤 방식으로 죄를 담당합니까?

답변: 승리절이라든지 메시아절이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날, 축복일에 구세주께서 성도들에게 왕의 반열에 세우는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구세주의 입술이 부르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왕의 반열에 세우면 성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밭세도록 피를 토하고 사경을 헤매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피를 토하는 것과 죄를 담당하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답변: 구세주께서 피를 토하는 것을 알려 죄를 담당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암유록에서는 구세주를 인류의 암마라고 표현합니다. 인류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는 고로 하나님으로 낳는 고로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는 그 고통이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첫 얘기를 낳을 때에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질문: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피를 토하는 해산의 수고와 그에 따른 참담한 고통을 매일 매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러한 구세주 노릇을 하겠습니까? 예수처럼 십자가 한 번 지고

인류의 죄를 모두 대속했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답변: 십자가 한 번 지고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되고 인류를 전부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다면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십자가 한 번 지고 모든 죄를 대속했다면 죄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말인데, 죄가 없다면 죄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겨날 수 없어야 그 말이 진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인류는 죄값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브리서 9장 22절)”라고 했는데, 과연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피를 토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죄를 대속하는 엄청난 고통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감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세주라는 것이 아무나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사람 몸을 입고 내려와서 어려서부터 말도 못하는 연단을 받았으며 평생이 연단의 기간이었습니. 그 무서운 연단 속에서 바로 이긴자가 되고 구세주가 된 것이지 연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단련되고 한도 끝도 없는 인내력을 갖추었기에 무서운 고통을 수반하는 죄 담당의 해산의 수고를 감내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 수원제단 : (031)236-8465
- 안성제단 : (031)673-4635
- 부산제단 : (051)863-6307
- 영도제단 : (010)6692-7582
- 김해제단 : (010)7518-9981
- 대구제단 : (010)6530-7909
- 마산제단 : (055)241-1161
- 진주제단 : (055)745-9228
- 진해제단 : (055)544-7464
- 영천제단 : (054)333-7121
- 사천제단 : (055)855-4270
- 순천제단 : (010)3661-9025
- 정읍제단 : (010)8628-2758
- 군산제단 : (063)461-3491
- 대전제단 : (042)522-1560
- 청주제단 : (010)5484-0447
- 충주제단 : (010)9980-5805
- 양평제단 : (010)2945-8254
- 橫濱祭壇 : (045)489-9343
- 神戶祭壇 : (078)862-9522
- 下關祭壇 : (0832)32-1988
- 大阪祭壇 : (06)6451-3914
-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